

10/7/18

설교 제목: 계명을 지켜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2:1-17

-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 (요일 2: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 (요일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요일 2: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 (요일 2: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 3:11, 요 4:21
- (요일 2: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절관주** 요 13:34, 요 15:12
- (요일 2:9)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 (요일 2: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 (요일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 (요일 2: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
- (요일 2: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요일 2: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
-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성도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사귀을
갖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사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좁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리고 좀 넓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며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를 가르킵니다.

십계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출 20:13) ○살인하지 말라
-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 (출 20:15) ○도둑질하지 말라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4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10 계명이 인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말합니다.

-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인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주신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마 22: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 (마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은 나쁜 것이며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이런 잘못된 인식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마치 의인인 양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을 사랑의 사도답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알려 줍니다.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일 2: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일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일 2: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일 2: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일 2: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이어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옛 계명과 내용상 같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도 형제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까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은 빛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일 2:9)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일 2: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요일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며 이들의 갈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들이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거기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음이나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땅 따먹기 놀이'를 생각해 봅시다.

서로 더 많은 땅을 가지겠다고 열내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땅을 따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녁이 되어 누엣누엣 해는 지고 어머니는 저녁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따먹은 땅이 아쉽지만 그대로 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왜 그렇게 열까지 내면서 열심히 땅을 따먹은 것입니까?

그때 따먹은 땅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더 큰 물에 나와서 다시 땅 따먹기를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따먹은 많은 땅들을 아쉬워하며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요일 2: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돈 명예 직위 남편 자식 아름다움 인기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얻는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